

디자인산업 육성

11월 중순 기업·학계 등의 디자인 전문가들과 디자인 정책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동 간담회는 디자인이 제품 차별화와 가치창출(value creation)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디자인산업 육성의지를 강조하고,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디자인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 기획단계부터 디자인과 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반면, 대다수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아직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며, 정부는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평균 디자인 투자액('08)은 대기업 10.2억원, 중소기업 0.15억원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In-house 디자인실' 역할을 할 디자인 전문회사의 역량을 제고하고, 디자인과 공학·경영학·사회과학 등이 접목된 다학제적 커리큘럼의 '융합 디자인대학'을 육성하여,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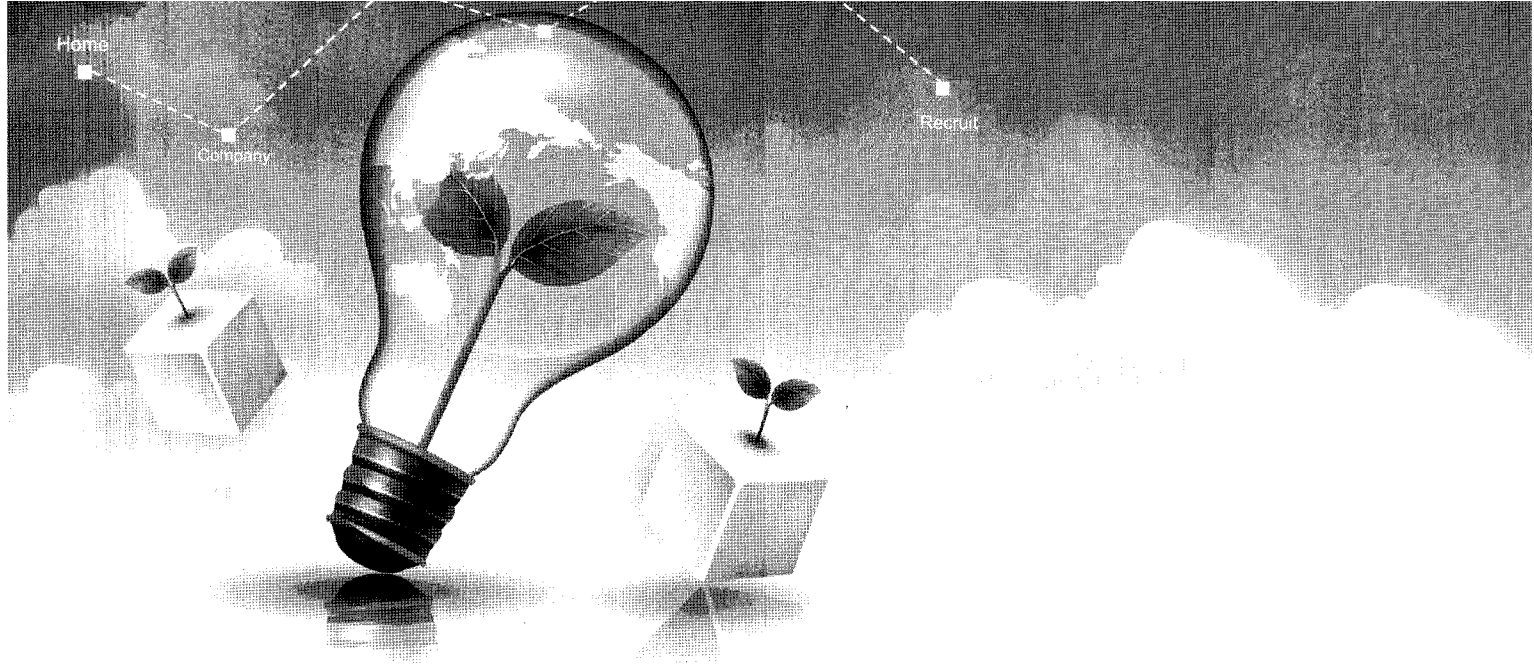
'10.11월 현재 8개 융합대학(원)이 선정되었으며, '14년까지 30여개의 융합디자인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디자인개발을 지원해 주기 위한 중소기업 디자인 119 사업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디자

인 119사업단이란 지역 디자인센터(광주, 대구, 부산) 내에 디자인 119 사업단을 설치, 중소기업의 디자인에 로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자인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10.11.8일 지경부는 디자인의 권리출원에서 사후보호까지의 모든 정보를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 디자인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디자인'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분야를 육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은 공공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인지·감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문제에 내재된 인간 행태를 분석·해결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정보의 전달방식 再디자인으로, 행동변화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한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으로 의료 서비스 방식으로, 기기개선을 통해 의료사고율을 낮추고, 만족감을 제고한다. 이 외에도 우리 디자인의 해외진출과 디자인 문화기반 확대 등 '디자인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를 실무 TF에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자문단 회의 직후, 디자인계 대표자들은 '디자인 권리보호 자율 서약식'을 시행하였다. 디자인 공급자와 수요자가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



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디자인 권리의식 확산 및 공정 사회 구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디자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디자인 권리 침해 사례와 디자이너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디자인 권리 침해 주요사례로 A社は B 디자이너에게 디자인개발 종료 후에도 추가 디자인개발 및 리디자인을 B에게 무상으로 요구, B사는 차후의 관계를 고려, 무상으로 실시하였다.

C社は 디자인 최종 검수 완료이후 발견한 오류에 대해 귀책사유가 C社에게도 있음에도 D디자이너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켰다. E 지자체는 공모전에서 수상작 이외의 낙선작에 대해서도 지적권 귀속을 명시하였다.

디자인 권리보호 자율 서약식을 통해 디자인 권리의식 확산 및 공정사회 구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지자체·산업계 및 디자인계 인사가 참석하여 디자인 권리보호를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다. 디자인 권리보호 선언문 주요내용은 디자인 공급자와 수요자가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디자인 공급자인 디자이너는 다른 디자이너의 디자인 모방을 지양하고, 디자인 수요자 기업은 디자인에 대해 적절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자이너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디자인의 권리출원에서 사후보

호까지의 모든 정보를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 최근 디자인의 창작·거래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디자이너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발간 작업('10.4~10월)을 추진해왔다. 특허청, 디자인진흥원, 저작권위원회, 디자인기업협회, 변리사 등 7명이다.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개념설명 중심의 기존 가이드북과는 달리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제작하였다. 디자인 보호법제를 소개하고 디자인 각 분야별로 개발 프로세스와 최종 결과물을 분석하여 보호가능한 법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디자이너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뿐만 아니라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디자인 표준거래 계약서도 수록했다. 지난 8월에 실시한 디자인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자인개발 시 권리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반면, 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리보호가 중요하다(76.65%), 디자인개발시 권리보호 제도를 이해하고 있다(18.88%)는 결과가 나왔다.(권리보호 실태조사, 2010 KIDP) 금번 가이드북을 통해 앞으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권리 보호에 대한 이

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가이드북을 활용한 대학강의, 디자이너 실무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업, 정부, 지자체의 디자인 지원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0부를 배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DB(www.designdb.com)에 게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북 컨셉 및 구성은 'MAP'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지하철 노선도를 그래픽 모티브로 선정한 것이다. 표지의 미로 이미지는 미로 안에서도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쉽고 빠른 방법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보호법제의 등록 절차도는 지하철 노선도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및 시각적 기호 활용을 통해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는 아마추어나 초보자도 정보획득 가능한 것이다.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실무 중심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 결과물별 및 개발 프로세스별 보호가이드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각 분야별 디자이너들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디자인 침해 및 피침해의 대표 판례 소개를 통해 유

사 상황 발생시 참고할 수 있다. 디자인 침해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이너 스스로 침해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주제	타이틀	구성내용
디자인권리 필요성 인식하기	<step1> 디자인과 디자인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디자인권리주장의 필요성 • (제2장) 디자인 보호법 소개 • (제3장) 권리화를 하지 못할 때의 불이익
디자인 권리화절차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장) 법제별 출원가이드 • (제5장) 개발 결과물별 보호가이드 • (제6장) 개발 프로세스별 보호가이드
분쟁 예방가이드	<step3> 디자인창작물에 대한분쟁 예방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장) 디자인 침해 및 피침해 대표사례 • (제8장) 사전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 (제9장) 구제방안 • (부 록) 자가진단
거래질서 확립	<step4> 거래질서 확립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장) 디자인 계약방식별 표준계약서 • (제11장) 공모전 응모작 권리에 대한 가이드

